

2023년 11월중 가계대출 동향(잠정)

- '23.11월중 소금융권 가계대출은 +2.6조원 증가

* 증감액(조원) : ('23.5월)+2.6 (6월)+3.2 (7월)+5.2 (8월)+6.1 (9월)+2.4 (10월)+6.2 (11월)+2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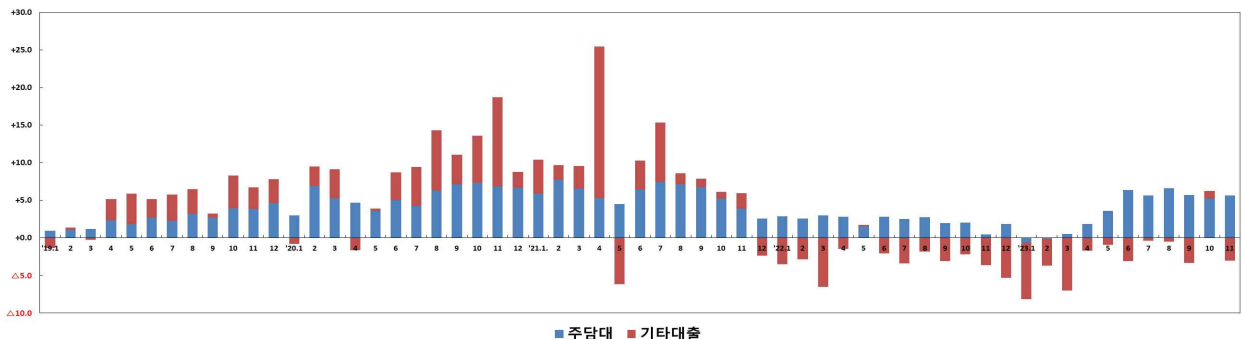
- 가계대출 증가폭은 은행권 관리 강화 조치 등으로 축소되었으나
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큰 수준인 만큼

은행의 여신심사 관행 개선 지도 등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지속할 예정 -

'23.11월중 소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+2.6조원 증가하여 전월(+6.2조원) 대비 증가폭이 크게(3.6조원) 축소되었다.

소금융권 주담대·기타대출 증감액 추이

(단위 : 조원)



주택담보대출은 +5.6조원 증가하여 전월(+5.2조원) 대비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다.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(+5.7조원)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, 제2금융권 감소폭이 다소 축소($\Delta 0.5$ 조원 $\rightarrow \Delta 0.1$ 조원)된 데 기인한다. 기타대출은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및 예금담보대출 위주로 총 $\Delta 3.0$ 조원 감소하였다.

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

(단위 : 조원)	'23.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
주담대	+3.6	+6.4	+5.6	+6.6	+5.7	+5.2	+5.6
기타대출	$\Delta 0.9$	$\Delta 3.1$	$\Delta 0.4$	$\Delta 0.5$	$\Delta 3.3$	+1.0	$\Delta 3.0$
합계	+2.6	+3.2	+5.2	+6.1	+2.4	+6.2	+2.6

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,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.

'23.11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+5.4조원 증가하여, 전월(+6.7조원)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.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6~9월(+6.0~+7.0조원)보다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, 대부분 무주택자 대상 정책성 대출, 집단 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 위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기타대출은 △0.3조원 감소하여 전월(+1.0조원) 대비 감소 전환하였다.

*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세부 현황(조원) :

(10월) 주담대(+5.7조) = 은행자체(+0.7조) + 주택도시기금(+3.7조) + 정책모기지(+1.3조)
↳ 일반개별(+2.3조) + 집단(+0.3조) + 전세(△1.9조)

(11월) 주담대(+5.7조) = 은행자체(+1.1조) + 주택도시기금(+3.7조) + 정책모기지(+0.9조)
↳ 일반개별(+1.7조) + 집단(+1.3조) + 전세(△1.9조)

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△2.8조원 감소하여 전월(△0.5조원)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. 상호금융권(△2.8조원, 새마을금고(△0.6조원) 포함), 저축은행(△0.1조원), 여전사(△0.03조원) 순으로 감소하였으며, 보험업권은 +0.1조원 증가하였다.

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

(단위 : 조원)	'21년중 (1~12월)	10월	11월	'22년중 (1~12월)	10월	11월	'23년중 ^P (1~11월)	10월	11월 ^P
은행	+71.6	+5.1	+2.9	△2.8	△0.6	△1.1	+34.1	+6.7	+5.4
제2금융권	+35.9	+1.0	+3.0	△6.0	+0.4	△2.1	△24.1	△0.5	△2.8
상호금융	+19.5	+0.4	+2.2	△10.6	△0.4	△1.5	△26.1	△1.6	△2.8
신협	+1.9	+0.5	+0.9	+0.1	+0.1	△0.1	△4.2	△0.4	△0.5
농협	+11.3	△0.7	△0.1	△11.1	△0.9	△1.6	△14.8	△0.8	△1.7
수협	+0.9	△0.1	△0.04	△0.5	△0.1	△0.1	△0.8	△0.02	+0.00
산림	+0.5	+0.1	△0.01	△0.1	△0.01	△0.02	△0.4	△0.01	△0.02
새마을금고	+5.0	+0.6	+1.5	+1.2	+0.5	+0.2	△5.9	△0.4	△0.6
보험	+5.4	+0.3	+0.5	+3.6	+0.6	+0.6	+2.8	+0.3	+0.1
저축은행	+6.3	+0.2	+0.2	+2.3	+0.2	△0.1	△0.4	+0.1	△0.1
여전사	+4.7	+0.2	+0.1	△1.3	+0.01	△1.0	△0.4	+0.7	△0.03
소금융권합계	+107.5	+6.1	+5.9	△8.8	△0.2	△3.2	+10.0	+6.2	+2.6

금융당국은 11월 가계대출이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 둔화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으나,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큰 수준인 만큼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 또한, 변동금리 Stress DSR 도입,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발견된 영업 및 대출 심사 관련 미흡사항 개선 등 既발표한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	책임자	팀 장	김태훈 (02-2100-1690)
		담당자	사무관	송병민 (02-2100-1692)
<공동>	금융위원회 은행과	책임자	과 장	강영수 (02-2100-2950)
		담당자	서기관	정태호 (02-2100-2951)
<공동>	금융위원회 보험과	책임자	과 장	신상훈 (02-2100-2960)
		담당자	사무관	박성진 (02-2100-2967)
<공동>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	책임자	과 장	신장수 (02-2100-2990)
		담당자	사무관	권나림 (02-2100-2991)
<공동>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	책임자	국 장	정우현 (02-3145-8020)
		담당자	팀 장	안신원 (02-3145-8040)
<공동>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	책임자	국 장	서영일 (02-3145-7460)
		담당자	팀 장	이권홍 (02-3145-7455)
<공동>	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	책임자	국 장	이종오 (02-3145-6770)
		담당자	팀 장	이희성 (02-3145-6773)
<공동>	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	책임자	국 장	김은순 (02-3145-7550)
		담당자	팀 장	이성희 (02-3145-7552)
<공동>	금융감독원 상호금융국	책임자	국 장	이호진 (02-3145-8070)
		담당자	팀 장	이동원 (02-3145-8083)